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 정 규 (Lee, Jung-Kyu) *

(E-mail : junglee@honam.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1 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 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 월 21일

* 학위취득대학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현직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연구는 주관적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은 각각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기존연구들에서도 양자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많은 발견과 논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들은 만족스러운 삶,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해 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과 사회적 자본을 직접 연결시킨 연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삶의 만족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특히 자원 수혜 메커니즘의 전형이라고 할 있는 사회적 자원망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단체에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공적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본 연구로부터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발전의 추진주체는 지역의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둘째로 공적 신뢰의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운영과 시

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의 발전은 공적 신뢰가 사적 신뢰를 대체해 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폐쇄적인 사적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로 이행되어야 만이 진정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삶의 질, 신뢰 사회적 참여, 사회적 자원

I.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학계에서 실증적 논의가 아직은 부족한 주제의 하나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의 관련성을 검토해보고 사회발전론적 함의를 도출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가운데서도 그 장기적·인지적요소인 삶의 만족감(satisfaction with life)이 특히 시민적 참여와 신뢰 및 공동체적 자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의해서 향상되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은 각각 지난 30여년동안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기존연구들에서도 양자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많은 발견과 논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시민적 참여, 지역사회 자원(resources)과 같은 사회적 자본들이 취업, 정서적 안정, 취약계층의 자아, 가족의 기능 수행, 기업의 성취, 빈곤의 극복, 질병의 치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진전,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족스러운 삶,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해 짐을 보여

주는 결과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과 사회적 자본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박길성(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인간의 삶에 과연 중요한 요소인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정책적인 결정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예컨대, 주민생활의 안녕과 사회발전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사회 조직화를 추구할 것인지 혹은 민주정치와 시민의식 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하도록 시민의식 교육(e.g., 오관석·신기현, 2008)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최근 후쿠야마(Fukuyama 1995)가 사회발전론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로 이제는 거의 모든 사회과학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임금(Granovetter 1974; Lee 1993; Bian 1997; 이정규 2000), 학교로부터 직업으로의 이행(이경상 2001; Brinton and Kariya 2000), 기업 조직의 성과(Burt 1997; Uzzi 1996; 이정규 2005), 빈곤지역의 경제발전(Gittel and Vidal 1998)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빈곤 퇴치(IBRD website), 지역 경제 발전(Saxenian 1996; Fukuyama 1995) 등에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적 참여와 그에 따르는 공동체적 자원의 투입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사실(Putnam 1994[2000])도 주목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의 공통적인 발견은 교육, 경제, 복지, 심리,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목적 지향적인 행위에서 개인적 역량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이 개별 분야에서 개인과 집단 혹은 전체사회가 지향하는 다양한 목표의 실현을 촉진한다면 전체적인 삶의 질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삶의 질의 개념이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에는, 경

제성장의 수준과 그로 인해 성취된 삶의 조건(life condition)을 의미했던 GDP(GNP)의 개념이 인간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즉, GDP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삶의 질의 개념에는 경제적 풍요(material abundance)와 같은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대체로 건강, 보건, 의료, 개인서비스, 교육, 환경, 안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삶의 질을 외부적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의 심리 내적 만족감 내지 행복감을 따지는 주관적 지표로 측정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우선 객관적 척도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지표들(social indicators)이 주로 사용된다. 객관적 지표들을 사용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 풍요 및 질적 측면들이 포함된 지표들을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 합산(weighted sum)하여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 김병국(1989)의 연구를 필두로 중앙일보사(1995)의 연구, 그리고 이재기·이은우·김홍재(1998)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지표는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만족감 혹은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결합물인 행복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만족감은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서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Shin and Johnson 1978)를 의미하고,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상태로서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조명한·차경호 1998, 19-20)를 측정한다. 또한 만족감은 장기적으로 갖게 되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이며, 행복감은 삶의 진행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갖는 경험의 요소로서 이들 만족감과 행복감은 다른 차원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ozma, Stone and Jones 2000, 14).¹⁾

1) 주관적 삶의 질의 정의(definition)는 정의가 매우 다양하여 10여년 전에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던 임희섭(1996, 8)의 판단이 아직도 유효해 보인다.

발전론의 시각에서 국내 학계의 삶의 질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객관적 척도들이 사회발전 혹은 지역발전의 지표로써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관적 척도들이 채택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박종민·김서용 2002, 141-2)²⁾. 이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고 지역이나 국가들 사이의 비교연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복리와 행복의 수준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 뿐 아니라와 주관적 지표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크다. 그 이유는 객관적 차원만을 살펴보는 경우 삶에 대한 내면적인 기대수준(주관적 준거틀)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임희섭 1996, 10) 외면적인 지표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높게 설정된 행위자의 내면적 기대, 외부의 준거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혹은 계급적 위치에 의한 선호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객관적 사회조건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환경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들 외부적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내부적 경험을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박종민·김서용 2002, 142).

그는 주관적 만족과 동의 혹은 이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차원적인 삶의 질 개념을 측정과 관련시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삶의 질이 크게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조명한·차경호 1998; 김신영·백혜정 2008)

- 2) 발전론 이외의 분야에서 주관적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수는 매우 많다. 이는 초기의 삶의 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소위 특수인구집단(special population: 빈곤층, 장애인, 정신질환자, 질병환자 등)의 복리 및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려는데 있었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임희섭 1995, 7)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주관적 삶의 질 연구들--특히 대학원 석·박사 논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인구집단의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임상적 개입의 영향력을 평가하려는 논문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척도, 특히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는 만족감에 의한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행복감보다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을 선택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족감 차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에 더욱 적합하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II.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측정 및 이론적 모형

1. 주관적 삶의 질의 측정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시도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신도철(1981), 하재구(1986), 조세환·오휘영(1993), 조명한·차경호(199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도철의 연구에서는 삶의 관심 부문을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조세환·오휘영의 논문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 1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명한·차경호의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삶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주관적 척도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척도를 보면 Diener 등(1985)이 개발한 5문항으로 구성된 생활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Andrews와 Withey(1976)가 개발한 기쁨-절망감(delight-terrible: D-T)척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21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영역별 만족도 척도, (정적·부적) 정서 빈도(frequency)척도, 정서균형점수(affective balance score:ABS), (정적·부적) 정서 강도(intensity)척도, 이상적인 안녕감의 수준을 고려한 개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의 정서적 경험을 고려한 개인의 정서적 경험의 수준, 감정의 변산성,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친숙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명한·차경호[1998]의 전제서 74-83쪽을 참조할 것) 본 논문에서는 삶의 질의 측정에 이 모든 척도를 모두 동원하기 보다는 만족감의 측면에 가장 적합한 척도로 평가를 받아온 생활만족척도(SWLS)를 사용한다.

2. 기존 모형의 검토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검토했던 구조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소득과 학력 및 취업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그리고 가족적·인구학적 배경(성, 연령, 결혼여부, 아동기 가족[양육]환경, 거주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된다. 소득은 문화적 요인 때문에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 그 효과가 약화(Esterlin 1974; Silver 1980)되기도 하고 또 국부(國富: 1인당 평균소득)의 증가가 행복감과 무관한 사례(Campbell 1981)도 있지만, 대체로 소득에 대한 만족도나 객관적 소득수준은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GDP 혹은 소득 등의 경제적 부를 행복이나 만족스러운 삶의 지표로 사용했던 것도 그만큼 소득과 삶의 질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육수준 역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이 드러난다. 캠벨 등의 연구(Campbell 1981)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所得水準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수준이 행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은 교육이 자원을 제공하

지만 기대수준을 높이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상태, 특히 실업은 행복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Campbell et al. 1976)가 있지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때처럼 직업이 취업과 실업이 반드시 주관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Wright 1978) 그러나 오늘날 직업세계가 갖는 여러가지 의의(경제적 독립 및 자아실현 등)를 고려해보면 취업이 더 높은 삶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리라는 점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로 건강상태는 주관적 삶의 지표와 객관적 삶의 지표 모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체적 건강은 특히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rson 1978). 캠벨(Campbell 1976)의 연구를 보면, 응답자들은 건강이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인식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아울러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있고,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 조명한·차경호(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두통이나 위통을 경험하는 빈도와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적절하게 느끼는 정도가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온다.

성과 결혼상태, 양육환경은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가족 배경들이다. 성의 경우 대체로 나이와 상호작용 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혼자를 포함해서)에 비해서 행복함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 (Andrews & Withey 1976).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이긴 하지만 결혼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보고와 삶의 질에 대한 결혼의 효과가 항상 크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결혼이 유의미하기 보다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성격, 자아존중감 등이 높을 때 결혼이 유

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육이 이루어지는 성장환경, 특히 부모간의 관계가 아동기의 삶의 질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그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조명한·차경호(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관계가 화목할수록 만족감과 행복감이 공히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인구학적 배경 가운데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변수는 연령과 거주지이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삶의 질과의 관련성은 삶의 질 척도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연령과 만족감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지만(Bortner and Hultsch 1970; Medley 1980) 행복감과 연령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Andrews & Withery 1976; Cameron 1975). 이 경향은, 이들 연구에서는 표집에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조명한·차경호 1998, 64),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기대했던 것들을 포기함에 따라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감정적 성숙으로 크게 기뻐하거나 괴로움을 가질만큼 일상생활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는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삶의 질에 대한 거주지의 영향을 처음으로 검토한 것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Shin et al. 1994)에서 인데, 이 연구와 그 이후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농촌거주자들이 도시거주자들에 비하여 만족과 행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 모형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직접 검토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자본 자체보다는 사회적 접촉이 행복감에 영향력이 있다는 가설들을 검

또한 연구들은 상당히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어떤 사회적 접촉이 만족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친구 관계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Anderson 1977; Campbell et al. 1976). 이를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조명환·차경호(1998)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만, 어떤 접촉이 보다 큰 영향력이 있는지, 사회적 접촉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교하고 척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자본이 발전론의 틀 안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수 인구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주로 이론화되고 검증되었었다. 최근 후쿠야마(Fukuyama 1995)가 고발전과 저발전의 차이를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신뢰에 의해 설명한 이래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목되면서 학계는 물론 정책결정 영역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념적 지형과 무관하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사회의 다양한 현안, 즉 민주주의, 경제성장, 교육, 복지, 지역활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이재열, 2000; 박길성, 2002: 109에서 재인용).

콜만(Coleman 1988, 9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사회구조의 한 측면으로 그 구조 내의 행위자들의 행동을 촉진한다.; 2) 다른 자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그 존재가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3)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자본이거나, 이

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channel) 이다. 콜만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무감(obligation),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규범(norms)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성취도(performance)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확대시킨 푸트남(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규정하였다(1994[2000], 281). 그는 선거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정부의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 예측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규모가 크고 다양할수록 촉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유형·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資産)으로, 행위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교환 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산들은 대략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 그리고 “신뢰(trust)”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 받았던 것들은 사회적 자원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되는 혜택들(benefits: 의무감, 정보, 규범, 신뢰, 원조, 사회적 지지 등)을 의미한다. (Lin 1982; Lin, Ensel and Vaughn 1981) 아는 사람을 통해서 획득한 노동시장 정보들이 구직자와 실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도 하고(Granovetter 1974; Lee 1993; 이정규 2000) 아이와 환자 돌보기와 같은 이웃의 지지(support)가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장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Moxley 1988). 동문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진 사업정보의 교류, 신제품 개발과 기자재 공동사용을 위한 협력 등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들이다(Saxenian 1996).

이러한 자원의 교환에서는 호혜성(reciprocity)의 규범을 전제로 하는데, 바로 이 호혜성에 대한 믿음이 신뢰의 본질이다. 즉, 신뢰

란 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자신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원을 언제인가는 되돌려 수혜받을 것이라는 기대(Putnam 1994[2000])를 의미하며, 또한 배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Burt, 1998)를 말하는 것이다. 신뢰는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를 나눌 수 있는데(박길성 2002), 전자의 경우는 특히 공공기관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연줄이라고 부르는 개인들 간의 유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적 신뢰의 정립과 그를 위한 현황파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다. 이는 공적 신뢰가 사회보다는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사적 신뢰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에서 사적 신뢰가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자본 연구모형은 구성원들에게 제공될 자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 자원들이 창출되려면,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참여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참여는 좁게는 이웃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support)의 제공, 자신의 취미나 복리를 위해 참여하는 행위에서부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행위(노동조합) 더 넓게는 지역사회의 일부 타인들을 지향한 자선행위(봉사단체)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시민적 참여(환경·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즉, 참여에 의해 투입되는 자원들이 개인들과 집단은 물론 전체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적 참여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푸트남의 연구(Putnam 1994[2000])는 스포츠클럽에의 참여를 포함한 모든 참여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제도의 효율성(지방자치, 민주주의)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자료, 변수, 가설

1. 연구가설과 자료수집 방법

이상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을 삶의 만족감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을 시민적 참여, 사회적 자원, 그리고 신뢰로 구분한다면, 기본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가설1-1: 시민적 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1-2: 사회적 자원 종류와 제공자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1-3: 신뢰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감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검증할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검토했던 요인들은 실제분석에서 통제요인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성, 연령, 결혼, 학력, 소득, 취업지위, 거주지) 그리고 개인적 역량(학력과 건강)과 성격적 배경(아동기성장환경) 변수들로서, 그 자체가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사회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2003년 광주·전남 지역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20세 이상의 개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자료는 먼저 시·군·구를 군집표집(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추출하고 다음으로 읍·면·동을 또 다시 군집표집으로 추출한 이후, 각 읍면동별 전화번호부의 주소를 바탕으로 체계적 표집의 방법에 의해 매 n번째 가구를 선정,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주와 전남이 각각 50%가 되도록) 수집되었다.³⁾ 800명을 목표로 모두 950여명의 주민들에게 면접원이 직접 찾아가 면접 조사 한 결과 유효 응답자로 753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⁴⁾

2. 변수의 구성

실제분석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위한 척도는 전술한 바대로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WLS척도는 Diener et al.(198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다음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각 매우찬성(7)부터 매우반대(1)에까지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된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이들을 단순 합계함으로써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측정한다.

- 1)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의 삶은 나의 이상(理想)에 가깝다.
- 2)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좋다.
- 3)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왔다.
-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변수명: 삶의 만족감 / 범위: 최대 35점 ~ 최소 5점

-
- 3) 가구 내에서 가구원에 대해 무선 표집을 하기 위해서 각 가구 구성원 가운데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선정하였다. 이는 각 가정에서 생일의 분포는 한 날짜에 집중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분포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변수들 가운데 신뢰와 자원 변수들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이들 결측치에 대해서는 평균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수정처리 하였다.

이 척도는 생활만족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역시 자주 사용되는 영역별 만족도의 합계에 의한 척도보다 더 일반성이 더 높은 개념을 반영하는 척도로서 총체적 만족감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신뢰, 사회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세가지로 변수화된다. 첫째, 공적 신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을 9개(정부, 국회, 법원, 군, 경찰, 교육기관, 대기업, 노동단체, 종교단체) 선정하여 그 중에서 신뢰하는 기관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각 기관에 대해 0(불신)과 1(신뢰)로 주어진 이항변수를 리커트(Likert) 척도 방법으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척도는 최대 9점에서 0점까지의 값을 갖는다.

변수명: 공공신뢰 / 범위: 최대 9점 ~ 최소 0점

둘째로 사회적 자원 변수는 하우스와 칸(House & Kahn 1985)의 개념적 요소를 약간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 칭하며 ① 정서적 지지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② 평가적 지지 (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평가 등), ③ 정보적 지지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④ 도구적 지지 (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충족의 효과를 가져 오는 실제적 도움)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한 바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원을 도구

5) 몇 가지 다른 분류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푸트남(1995)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적 자본(bonding capital)과 교량적 자원(bridging capital)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전자는 친밀한 집단 내부에서 오는 것으로 정서적 격려, 가사·육아·간병과 관련된 도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액수의 금전 빌리기 등이 그 예가 된다. 후자는 행위자가 원래는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소속집단 경계 너머 다

적 원조, 정서적 원조, 정보적 원조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두 가지씩 총 6가지의 지표를 작성하였다. 도구적 원조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가사일과 관련된 원조를 파악하도록 선정하였고(필요할 때 환자나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집안일에 필요한 적은 돈이나 일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들은 사적인 조언과 동반활동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선정하였으며(사적인 고민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여가활동에 동반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정보의 측면을 측정할 문항으로는 민원과 취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법 행정 세금 복지 등에서의 민원과 관련해 도움을 줄 사람, 일자리나 승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이들 각 원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입하게 하고 이를 합산하여 원조자들의 규모도 측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원조 네트워크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사회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2개의 변수가 구성된다. 첫째는 자원이 “6가지 영역 중 몇 가지에서 제공 되는가”이고 둘째는 자원 “제공자의 총수는 몇 명인가”이다. 이들 변수는 자원의 영역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받고 있는가를 각각 측정한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한다.

른 행위자에게 연결됨으로써 확보되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 정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Moose & Mitchell (1982)은 ① 사회적 동반의식 제공, 여가 및 사회적 활동에의 공동 참여, ② 승인 및 존중 등의 정서적 지지, ③ 기대의 명확화, 정보교류, 상호적 역할 모델, 인지적 안내, 조언, ④ 물질적 보조와 원조 서비스, ⑤ 역할의무 재확인 등의 사회적 통제 등의 5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목슬레이(Moxley, 199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① 동반적 지지(식사, 게임(스포츠), 외출과 여행, TV시청, 파티 등에서의 동반), ② 도구적 지지(수송, 정보공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호, 식사준비, 서비스/심부름, 가사업무, 수리(수선), 문서작성, 재정적 문제 등에 있어서의 도움), ③ 물질적 지지(소액의 금전, 옷, 식사, 주택과 보호처, 가구/도구 등의 제공), ④ 사회-감정적 지지(어드바이스, 관심거리에 대한 공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중개, 복지문제에 관한 조언)의 4가지로 종합된다.

변수명: 자원영역 / 범위: 최대 6점 ~ 최소 0점

변수명: 자원제공자수 / 범위: 최대 200 ~ 최소 0명

셋째로 사회적 참여는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체의 수와 참여의 빈도를 결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한다. 측정 기준으로 삼은 사회단체에는 노동조합, 정당, 환경단체·시민단체, 자선(봉사)단체, 지역주민단체(부녀회, 새마을회), 종교내의 활동단체, 문화(음악·연극 등)단체, 스포츠 및 레저클럽, 기타의 9개 단체이다. 응답자들에게 이들 단체 각각에 대한 참여여부를 묻고, 또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에 대한 참여의 빈도도 아울러 질문하였다. 이는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체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더 빈번하게 참여할수록 참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 것이며, 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참여단체수와 참여빈도의 2개 변수가 구성되는데 이들은 “참여 단체 없음”이라는 범주를 공유하게 되어 다변인 분석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 사회참여 변수를 네 개의 더미(dummy)변수로 재구성한다. 아래의 각 더미변수는 “참여단체 없음”을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하며, 1개 단체에 참여하며 종종이하 참여하는 경우, 1개 단체에 참여하며 자주 참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며 종종이하 참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며 자주 참여하는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변수명: 참여1_종종이하 / 범위: 최대 1점 ~ 최소 0점

변수명: 참여1_자주 / 범위: 최대 1점 ~ 최소 0명

변수명: 참여2+_종종이하 / 범위: 최대 1점 ~ 최소 0점

변수명: 참여2+_자주 / 범위: 최대 1점 ~ 최소 0명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는 기존 모형에서 검토되었던 변수들이 투입된다. 그 변수들의 명칭과 의미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가족적·인구학적 배경으로 성, 연령, 결혼여부, 아동기 성장환경으로서의 부모 관계, 거주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성 변수와 결혼상태 변수는 이산형(binomial) 더미변수(성별d, 결혼d)로 만나이는 연속변수로 이루어졌다.

<표 1> 통제변수의 명칭과 정의

변수명	변수의 의미
성별d	성별 더미 (1=남자 0=여자)
만나이	만연령 (연속변수로 측정)
결혼d	배우자 유무 더미 (1=배우자 있음 0=없음)
아동기 부모관계 양육양d 양육편d	아동기 시절 부모간 관계 더미 (1=좋은 관계 0=나쁜관계 혹은 부모부재) (1=편부모 0=나쁜관계 혹은 부모부재)
거주지 거주지d1 거주지d2	거주지 더미 (1=대도시[광주] 0=농촌지역) (1=중소도시[목포·순천] 0=농촌지역)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이 좋은 정도 (1=매우 나쁨 7=매우 좋음)
신체반응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반응 (2=매우 적음 14=매우 빈번함)
학력	정규교육 (단위: 년, 연속변수로 측정)
월수입	가구소득 (단위: 만원, 연속변수로 측정)
경제활동 상태 취업d 실업d	경제활동 상태 더미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구분) (1=취업 0=비경제활동) (1=실업 0=비경제활동)

아동기 성장환경은 크게 ① 부모가 모두 존재하고 그 관계가 좋았던 경우 ② 편부 혹은 편모가 존재한 경우 ③ 부모가 있더라도 관계가 나쁘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실제 분석을 위해서는 세 번째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두 개의 더미(dummy) 변수를 구성하였다. 부모관계가 좋은 경우가 삶의 질이 가장 높고, 부모가 있더라도 관계가 나쁘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가

한 분이 안 계신 경우보다 삶의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추정한다.

건강상태 변인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건강상태와 스트레스시의 신체반응을 설정하였는데, 신체반응 변수는 두통과 불면증을 경험하는 빈도(1점=전혀 없다, 7점=항상 있다)와 기분 나쁠 때 위통과 과민성 대장증세를 경험하는 빈도(1점= 전혀 없다, 7점=항상 있다)의 점수를 결합한 점수이다. 사회·경제적 변인으로는 학력, 소득, 취업상의 지위(경제활동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회·경제적 변인, 특히 소득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삶의 질 연구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받아 온 바 있다.

IV. 분석 결과

1. 삶의 질의 수준과 표본의 성격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본적인 분포는 아래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SWLS)를 사용한 조명환·차경호(1998)의 연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척도를 사용한 박종민·김서용(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 점수는 중간을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다. (참고로 행복감 차원의 척도는 중간점수를 약간 넘는 경향을 보인다.) 1995년에 조사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SWLS 평균점수가 18.73로 약간 불만의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광주·전남 성인들도 18.67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그 대상이 대학생들로 다르지만,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 척

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여겨진다. 박종민·김서용(2002)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내타내고 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행복감의 평균은 1.80으로 중간(1.5)을 약간 넘어서며, 0에서 10의 범위를 갖는 만족감은 6.06으로 중간수준을 약간 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변수들의 기본 분포

(n=753)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삶의 만족감	18.671	5.704	5	35
성별d	0.393	0.489	0	1
만나이	43.444	15.379	20	85
결혼d	0.752	0.432	0	1
아동기 부모관계				
양육양d	0.823	0.382	0	1
양육편d	0.090	0.287	0	1
거주지				
거주지d1	0.466	0.499	0	1
거주지d2	0.252	0.435	0	1
건강상태	4.880	1.598	1	7
신체반응	6.042	2.953	2	14
학력	11.460	4.037	0	18
월수입	220.124	153.233	25	649
경제활동 상태				
취업d	0.542	0.499	0	1
실업d	0.074	0.263	0	1
공공신뢰	1.491	1.090	0	9
자원영역	4.466	1.638	0	6
자원제공자수	11.443	15.023	0	200
사회적 참여				
참여1_종종이하	0.205	0.404	0	1
참여1_자주	0.098	0.298	0	1
참여2+_종종이하	0.070	0.256	0	1
참여2+_자주	0.078	0.269	0	1

그 밖에도 남자의 비율이 39.3%, 평균연령이 43.44세, 기혼자의

비율이 75%, 성장기에 부모관계가 좋은 가정에서 자란비율이 82%, 편부모슬하의 비율이 9%, 양친이 부재하거나 구존하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9% 정도였다. 평균 교육 기간은 11.46년으로 평균학력은 고졸로 보인다. 취업자의 비율이 54%, 실업자(구직활동 기준)의 비율이 7%,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39%정도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가는 7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4.88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 즉, 스트레스나 기분이 나쁠 때 두통, 불면, 위통, 과민성대장염이 발생하는 정도는 1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이 6.04로서 중간보다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표집 구성원은 대체로 건강하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주택소유자는 71%, 월평균 수입은 220만원 정도, 거주지는 47%가 광주, 25%가 전남의 중소도시, 28%가 전남의 농촌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9점의 최대값에 평균이 1.48이면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는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정도를 모두 접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비동거 가족, 이웃, 친구와 직장동료, 같은 교회신도, 시민사회단체, 학연 및 복지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회적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영역은 모두 6가지 중에서 대략 4.5가지이고 그 제공자의 수도 11명 정도로 나타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고 그 제공자의 수도 결코 적지 않다. 참여의 수준을 보면 설문에 예시한 9개 단체 가운데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약 55%에 이르며, 30%가 1개의 단체 그리고 15%가 2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1개 이상 참여자인 45%의 응답자 중 적극적으로(위의 표에서 자주)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은 약 18% 정도이며 종종이하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은

27%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는 상당히 높으나 사회단체에의 참여율은 과반수의 응답자가 참여하는 단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원제공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표 3>), 평균적으로 2.8개 종류의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사회적 자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친구, 비동거 가족, 이웃 등이다. 비율이 낮은 유형은 직장동료, 동문, 취미클럽의 순서이며 그리고 공공(보건, 복지, 행정)기관이 가장 낮다. 또한 참여단체들을 보면 종교내 활동단체가 가장 많으며, 스포츠·레저단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선단체나 주민단체, 환경단체, 문화단체 등 공익을 위한 단체에의 참여율이 그리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자원과 원조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사적 네트워크인 친구와 가족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참여에 있어서도 공익적 가치보다는 사적인 가치가 더 큰(종교와 건강) 분야에의 참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공익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원이 확보되기보다는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확보되고 있으며, 우리의 지역사회가 여전히 상당히 폐쇄적임을 시사 하는 결과라 하겠다.⁶⁾

6) 물론 푸트남(Putnam 1994[2000])은 스포츠·레저 단체도 “참여”의 중요한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스포츠클럽 참여도와 다른 결사체에의 참여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p. 184). 또한 이것은 공익적 참여를 위한 학습의 기회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사회적 자원 제공자의 유형

자원제공자 유형	비율	참여단체 유형	비율
이웃	0.51	노동조합	0.04
직장 동료	0.25	정당	0.02
같은교회 신도	0.18	환경·시민 단체	0.04
취미 클럽	0.13	자선·봉사 단체	0.07
동문	0.21	주민(부녀·새마을)단체	0.09
보건·복지·행정 기관	0.07	종교 내 활동 단체	0.22
비동거 가족	0.69	문화 단체	0.02
친구	0.77	스포츠·레저 단체	0.12
		기타	0.04
자원제공자 종류 = 평균 2.83		사회단체 참여율 = 45%	

2.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효과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 변수(SWLS)에 위의 설명변인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섯 개의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기본모형으로 선행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들만을 투입한 것이며, 그다음은 신뢰, 사회적 원조, 시민적 참여 변수들을 차례로 추가한 모형들이고, 마지막은 사회적 자본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종합 모형이다.

먼저 기본 모형의 계수들을 보면, 성과 결혼이 삶의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기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응답자의 삶이 더 만족스러우며,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목포, 순천)보다 농촌이 더 만족스런 주거환경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대처능력(신체반응)이 가설의 예측(양자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변인 중 학력과 소득 또한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취업과 실업의 효과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삶의 질(만족감 차원: SWL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기본 모형	신뢰 추가 모형	사회적 자원 추가 모형	시민적 참여 추가 모형	사회적 자본 종합 모형
	B (β)	B (β)	B (β)	B (β)	B (β)
(상수)	10.99	10.35	9.74	11.36	9.60
성별d	-0.15 (-0.01)	-0.16 (-0.01)	-0.19 (-0.02)	-0.22 (-0.02)	-0.24 (-0.02)
만나이	0.04 * (0.11)	0.04 * (0.11)	0.04 * (0.12)	0.04 + (0.10)	0.04 + (0.10)
결혼d	0.68 (0.05)	0.68 (0.05)	0.69 (0.05)	0.59 (0.04)	0.63 (0.05)
양육양d	1.53 * (0.10)	1.51 * (0.10)	1.49 * (0.10)	1.41 * (0.09)	1.37 + (0.09)
양육편d	1.41 (0.07)	1.23 (0.06)	1.42 (0.07)	1.03 (0.05)	0.93 (0.05)
거주지d1	-0.03 (0.00)	-0.07 (-0.01)	-0.04 (0.00)	0.14 (0.01)	0.06 (0.01)
거주지d2	-1.48 ** (-0.11)	-1.44 ** (-0.11)	-1.09 + (-0.08)	-1.27 * (-0.10)	-0.94 + (-0.07)
건강상태	0.49 ** (0.14)	0.50 ** (0.14)	0.47 ** (0.13)	0.48 ** (0.13)	0.48 ** (0.13)
신체반응	-0.13 + (-0.07)	-0.13 + (-0.07)	-0.15 * (-0.08)	-0.13 + (-0.07)	-0.13 + (-0.07)
학력	0.16 * (0.11)	0.17 * (0.12)	0.13 + (0.09)	0.13 + (0.09)	0.12 (0.08)
월수입	0.01 ** (0.16)	0.01 ** (0.15)	0.01 ** (0.14)	0.01 ** (0.14)	0.01 ** (0.12)
취업d	-0.55 (-0.05)	-0.54 (-0.05)	-0.60 (-0.05)	-0.60 (-0.05)	-0.62 (-0.05)
실업d	-0.61 (-0.03)	-0.65 (-0.03)	-0.58 (-0.03)	-0.46 (-0.02)	-0.50 (-0.02)
공공신뢰		0.48 ** (0.09)			0.37 * (0.07)
원조영역			0.31 * (0.09)		0.29 * (0.08)
원조자수			0.04 * (0.09)		0.03 + (0.07)
참여1 중중이하				0.73 (0.05)	0.73 (0.05)
참여1 자수				2.17 ** (0.11)	1.94 ** (0.10)
참여2+ 중중이하				0.33 (0.01)	0.03 (0.00)
참여2+ 자수				2.04 ** (0.10)	1.49 + (0.07)
F값	6.676**	6.743**	6.906**	6.013**	6.016**
R ²	0.105	0.113	0.123	0.122	0.141

주) +: p<0.1 / * : p<0.05 / ** : p<0.01

표준화된 계수(β)를 보면, 이들 변수 중 소득(월수입)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독립변수들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본 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R^2 이 0.105로서 삶의 만족감 전체 변량의 10.5%를 설명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제적 상태와 건강이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삶의 질 변수의 변량을 크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대략 15% 정도 설명)는 선행연구의 경향들을 고려할 때⁷⁾ 본 기본모형의 설명력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결과 중 가설의 예측과 다른 경우는 성, 결혼상태, 취업상태 변수의 계수들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수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전반적 만족감이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없거나(e.g. Andrew and Withey 1976; Cambell et. al. 1976), 결혼과 삶의 질 간에 비록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e.g. Cambell et. al. 1976)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업이 행복감과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지만 전업주부(비경제활동인구)가 직업을 가진 주부보다 덜 행복하지는 않다(Wright 1978)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이후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추가되는 모형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즉, 신뢰, 사회적 원조, 시민적 참여를 개별적으로 추가된 경우에도 이들 변수의 회귀계수는 영향력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이 모두 추가된 종합모형에서는 학력 변수만이 그 통계적 유의성

7) 여기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표 4>의 기본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지칭한다. 한편 박길성(2002, 131)의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만족지수) 변량을 약 13.4%정도 설명하고 있고, 사회적 자본 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 그 설명력이 약 17.9%정도이다. <표 4>에서는 그 설명력이 각각 10.5%와 14.1%로서 선행연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을 상실하고 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 모형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공신뢰가 높을수록 또 원조의 종류가 다양하고 원조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많은 이웃들로부터 받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 더욱 만족스럽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참여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은 예상과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많을수록 또 열심히 참가할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본 자료에서는 참여하는 단체의 숫자보다 참여의 열의(즉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단체에 참여하더라도 자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한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감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이 주목했던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변수들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며, 변수가 새로이 추가되는 만큼 모형의 설명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편다면, 그 효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제약받거나 약화되지 않고 확대시킨 만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임을 의미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발전론적 측면에서 오늘날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과의 연관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자본은 오늘날 사회과학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미 부상하였고, 삶의 질 역시 GDP를 대신해서 인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를 측정하는 대안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특히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요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자본이 특히 시민적 참여와 사회적 자원이 사회발전의 주관적 측면 즉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찾은 중요한 발견으로는 첫째, 특히 자원 수혜 메커니즘의 전형이라고 할 있는 사회적 자원망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단체에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공적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아직 시민적 기여 및 공적 신뢰가 부족한 소위 폐쇄적인 연줄사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이며,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삶의 질의 여러 다른 차원에 대해 각기 다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비록 인지적 차원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측정했지만, 시민적 참여, 사회적 자원, 신뢰 모두가 삶의 질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사회단체에의 참여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며, 더 나아가 참여의 열의(참석빈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적 참여를 적극 강조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셋째로 사회적 자본 변수들 사이에 있는 관계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문헌에 의하면 신뢰는 장기적인 참여와 자원의 제공이 지속되어야 형성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경우 공공수준에서의

장기적인 자원의 제공(참여)과 수혜(자원제공)를 통한 공적신뢰가 아직도 적절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네트워크의 수혜는 공익적 참여에 의한 것보다 폐쇄적인 연줄망으로 부터 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공공의 신뢰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로부터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는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은 그 수준이 낮지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로부터 지방정부이건 중앙정부이건 혹은 비영리기구이든 간에 지역사회의 발전의 추진주체는 지역의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성 교육(e.g. 오관석·신기현 2008)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지원의 내용은 회의 장소의 제공과 운영비 지급, 그리고 인재 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정부의 관변단체의 경우에 한정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적 신뢰의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운영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푸트남(Putnam, 1994[2000])의 연구에서 본 남이탈리아의 사례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사적 네트워크에 의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교환과 신뢰는 오히려 사회통합과 에너지의 분출·결집보다 사회의 파편화와 에너지의 소모적 소진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의 발전은 공적 신뢰가 사적 신뢰를 대체해 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폐쇄적인 사적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박길성, 2002: 136). 제도의 투명성을 견지하는 정치적 작업을 통해 기존 연고의 이점인 내부자적 거래의 이점을 약화시킴으로써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로 이행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병국, 1989, “도시생활환경지표와 측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신영·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제42집-6호.
-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통권 108호.
- 박종민·김서용, 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통권 108호.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5월호.
- 오관석·신기현, 2008,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 윤병식·정우진·이현송·연하청·한성덕·박주현,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그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기·이은우·김홍재, 1998,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간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 이정규, 2000, “노동자-직업 연결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고용보험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학』, 2002년 가을호.
- 이정규, 2004, “지방분권과 혁신의 네트워크”, 『사회와 이론』, 2004-1호.
- 이정규, 2005,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혁신”,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12집.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 조명한·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세환·오회영, 1993,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분석-경주시 사례연구”, 『국토계획』, 제28집 4호.
- 중앙일보, 1995, 『전국74개시 비교평가자료집: 삶의 질 입체 분석』, 서울: 중앙일보사.
- 통계청, 2002a,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02b, 『시군구 100대 지표』.
- 하재구, 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Andrews, F. M. and S.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1976.
- Bian, Y., 1997. “Bring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ties, network bridges, and job searche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 Bortner, R. W., and D. F. Hultsch,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Vol. 25
- Brinton, M. and T. Kariya, 2000. “Social Capital in the Japanese Youth Labor Market: Labor Market Policy, Schools, and Norms”. *Policy Sciences*. Vol. 33.
- Burt, R.,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2.
- Burt, R.,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Campbell, A., P. E. Converse and W. L. Ro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4.
- Diener, E., R. S. Emmons, R. Larson and S. Griffin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 E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 and M. W. Reders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Academic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Gittel, R. and A. Vidal, 1998,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Thousand Oaks, CA: Sage.
- Granovetter, M., 1974, *Getting a Job*.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rison, B. and M. Weiss, 1998, *Workforce Development Network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nd Regional Alliances*, Thousand Oaks. CA: Sage.
- House, J. and R. Kahn,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Cohen, S. and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IBRD web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index.htm>.

Kozma, A., S. Stone and M. Jones, 2000, "Stability in components and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implications for SWB structure". in Diener E. and D. Rahtz,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Larson, R., "Is Feeling 'in Control' Related to Happiness in Daily Life". *Psychological Reports*. Vol. 64.

Lee, J. K., 1993, "Organizational Constraints, Network Matching, and the Reemployment of Displaced Worker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Sociology. State Univ. of New York at Stony Brook.

Lin, 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edited by Marsden, P. and N. Lin. Beverly Hills. CA: Sage.

Lin, N., W. Ensel, and John Vaughn, 198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Mayers,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Urban Affairs Quarterly*. Vol. 23.

Medley, M. L., 1980, "Life Satisfaction across Four Stages of Adul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11.

- Moxley, D., 김만두 역, 1989[1993], 『사례관리 실천론』, *The Practice of Case Management*. 서울: 홍익제.
- Putnam, R., 1994[2000],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역, 서울: 박영사.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 Saxenian, A,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Shin, D. C., and D. M. Johnson,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
- Shin, D. C., M. Zoh, and M. Chey, 1994, *Korea in the Global Wave of Democratization*. Seoul: SNU Press.
- Silver, M., 1980, “Money and Happiness: Towards Eudaimonlogy”. *Kyklos*. Vol. 33.
- Uzzi, B., 1996,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embeddedness for the economic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The network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 Wright, J. D., 1978, “Are Working Women Really More Satisfied?: Evidence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Satisfaction with Life and Social Capital: Centered on the effect of Civic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Resources

Lee, Jung-kyu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capital. Both have been among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the social science fields during the last 30 years. Previous research has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o date, empirical outcomes have shown that social capital exerted a positive impact upon employment, emotional stability,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and solving social problems. These results confirmed the ability of social capital to act as a spur to a more satisfactory life and provide a higher quality of life.

I have defined social capital as a combination of civic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resource, and inserted them into the regression equa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s a control for this analysis, I also added equations of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like income and education, health status like subjective judgment on physical health and psycho-somatic response, and other family-demographic factors like gender, age, marriage status, residential area, and parents' relationship during

childhood.

After controlling for the socio-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and family-demographic variables, social capital variables al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life. However, the levels of trust and civic (or public interest oriented) participation were lower than desired. These findings present two implications. First, the principal agents of community development should exert a more serious effort in supporting the growth of civic organizations. Education for civil society is the key option to achieve this. Second, to improve public trust, we need to foster a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c organizations. Generally, the development of western society is regarded as the process of replacing private trust by public trust and the decline of closed private networks.

Key words: Social Capital, Quality of Life, Civic Participation, Trust, Social Resources.